즉시 배포용: 2017 년 4 월 19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의 헤로인과 오피오이드 확산 대처에 2 억 달러 이상 투자하는 입법에 서명

주택용 치료 침대, 주택 단지 및 오피오이드 치료 프로그램을 포함한 커뮤니티 기반의 서비스 제공자에 1,450 만 달러 투자

낼럭손(Naloxone) 치료제와 교육에 600 만 달러

FY 2011 예산보다 100% 이상의 지원금 인상

과잉 처방을 제한하고 치료 장벽을 제거하는 주지사의 2016 년 입법을 기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의 헤로인과 오피오이드 유행 대처에 2 억 달러 이상 투자하는 입법에 서명하였습니다. 2016 년에 주지사는 헤로인과 오피오이드 단속반의 건의에 따라 종합적인 계획을 법으로 정하여 뉴욕에서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커뮤니티 지원 전략을 확장하고 오피오이드에 대한 과다 처방을 제한하였습니다. 2018 회계연도 예산 (Fiscal Year 2018 Budget)은 화학물질 의존성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치료, 회복 프로그램, 입원 서비스 기회, 그리고 공중 인식 및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 억 달러를 투자하여 이 절차를 강화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헤로인과 오피오이드의 파괴적인 확산과의 싸움에 커다란 진전을 이루어왔지만, 이 위기는 계속하여 커뮤니티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건강상의 복잡한 비상사태와 싸우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해야 합니다. 이 종합적인 투자 계획은 헤로인과 오피오이드 중독의 예방, 치료 및 회복 등 모든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여 개인과 가족들이 이 고통의 고리를 끊게 하여 생명을 지키고 모두가 강하고 건강한 뉴욕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의 오피오이드와 관련한 과다복용 사망 사건은 해마다 늘어납니다. 2015 년에 오피오이드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0 년의 두 배이며 2015 년에 헤로인과 관련한 사망자 수는 2010 년의 다섯 배였습니다. 이밖에, 2010 년과 2015 년 사이에 뉴욕시 외의 지역에서 오피오이드로 인한 사망자 수는 헤로인과 관련하여 급격히 증가한 사망자 수와 함께 더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확산 사태에 비추어 FY 2018 년 예산에는 FY 2011 년보다 100% 증가한 2,130 만 달러를 투자하여 뉴욕의 헤로인과 오피오이드 위기를 해결하려 합니다. 투자 범위:

- 커뮤니티 기반의 서비스 제공자에 1 억 4,500 만 달러
  - 8,000 가구 주택용 치료 침대에 6,500 만 달러
  - 주택단지에 900 만 달러
  - 오피오이드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4,100 만 달러
  - 외래 환자 서비스에 2,100 만 달러
  - 위기/해독 프로그램에 900 만 달러
-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중독치료센터에 2,700 만 달러
- 낼럭손(Naloxone) 치료제와 교육에 600 만 달러
- 가족 지원 네비게이터, 동년배 참여 및 24/7 긴급 방문 센터 등을 포함한 광범한 프로그램에 2,500 만 달러

주지사의 헤로인 및 오피오이드 중독 단속반 공동 위원장인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행정부는 Cuomo 주지사의 인솔하에 헤로인과 오피오이드 중독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실행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에 추가로 유입된 자금은 더 많은 개인, 가족 및 커뮤니티가 이 치명적인 전염병과 싸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 전염병은 우리주에서 이미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 자금은 오피오이드 치료 슬롯, 24/7 긴급 방문 센터, 커뮤니티 동맹, 가족 지원 내비게이터, 동년배 참여 프로그램, 청소년 클럽 및 커뮤니티와 자원봉사 센터를 지원합니다.

FY 2018 예산의 지역별 배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도 지역 - 700 만 달러

센트럴 뉴욕 - 500 만 달러

핑거 레이크스 - 1,200 만 달러

롱아일랜드 - 2,300 만 달러

미드 허드슨 밸리 - 1,900 만 달러

모호크 밸리 - 500 만 달러

뉴욕시 - 9,400 만 달러

노스 컨트리 - 700 만 달러

서던 티어 - 300 만 달러

웨스턴 뉴욕 - 1,600 만 달러

Cuomo 주지사의 이전 계획들

2014 년 이래, Cuomo 주지사는 헤로인 및 오피오이드 중독과 싸우기 위해 아래와 같은 일련의 적극적인 개혁을 시행해왔습니다.

- 급성 통증에 대한 최초의 오피오이드 처방을 30 일에서 7 일로 제한
- 약물 사용 장애 치료에 대한 보험 범위 확대
- 오피오이드 치료 및 회복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고, 주 전역에서의 치료 기회를 늘리고 치료 역량을 강화
- 과다 처방을 억제하기 위한 포괄적 I-STOP 법 시행
- 뉴욕 주민들에게 헤로인 사용, 오피오이드 남용 및 중독의 위험에 대해 알리기 위한 대중 인식 및 예방 캠페인 개시
- 헤로인 및 오피오이드 확산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들을 제안할 대책팀 소집

###